치매로 깨질 연합과 복음적 연합

(시편 133:1~3)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치매로 깨질 연합과 복음적 연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치매로 깨질 연합과 복음적 연합'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은 평소에도 잘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을 말함에 있어서 치매를 언급한 이유는 연합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의 연합은 근거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아닌 야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나 혈연 혹은 나라와 민족과 회사 등과 같은 소속감 때문에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겠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추궁해 들어 가다보면 가족 간의 연합조차도 의심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내다가 이스라엘 11지파가 투항하여 명실 공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기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성벽을 쌓았고 법궤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온 뒤에 이 시를 지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법궤를 옮기고 성막을 완성시킨 상태가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성막의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형제를 연합시키는 바른 근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의 연합과 제목에서 언급한 치매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치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디멘시아(dementia)는 라틴어에 기원을 둔 말로써 '정신이 없어지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독성 단백질에 의해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나 해마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됨으로써 생겨납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지력과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힘들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들의 경우에는 가족조차도 몰라봅니다.
이러한 증상을 말씀에 비추어볼 때에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 환자일지라도 영혼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의 일부분 중에서 뇌의 기억장치나 인지기능 부분이 손상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정신 속에는 가족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에는 기억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맺고 살았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사라져 버려도 영혼과는 무관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뇌에서 작용하는 기억장치에 근거될 뿐입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다 죽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뇌를 포함한 몸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내의 영혼과 만나고 부모님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과도 만나게 되었다면 영혼에게도 이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면서도 기억장치인 뇌에 손상이 생기면 그 사람 안에는 가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뇌를 비롯한 몸 전체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아내였던 사람의 영혼을 만나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영혼이 된 사람에게 아내를 찾고 부모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책잡으려고 계대결혼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형이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자녀를 형의 이름에 입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제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차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뒤에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계대결혼이라는 아주 강력한 논리를 제시한 것입니다(마 22:23~28).
이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29~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극히 제한된 측면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때에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부부가 없습니다. 부부가 없으니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습니

다. 천국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은 혈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육체에 근거된 어떠한 연합과 동거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라는 질환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뇌의 기억장치만 손상을 입었을 뿐인데 더 이상 남편도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정상적으로 살다 죽더라도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흙이 되어버린 이상 영혼에게는 살아있을 때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둠으로써 지상에서의 기억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 자체가 아닙니다. 열두 지파의 연합과 동거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이라는 것이 연합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합의 근거는 선민이나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연합의식조차 대폭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연합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은 제1대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성별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이 바로 연합의 근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헐몬 산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높기에 어디서든지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산은 규모로 치자면 헐몬 산에 비해 낮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슬처럼 내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슬처럼 내려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연합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께 몰입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연합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 역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더는 세상에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대상을 찾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채워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의 대상을 찾으려

함에 있어서 선민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선택함이 연합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50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육체의 삶은 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하나님께 선택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부부로 자식을 낳고 살았을지라도 연합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몰입됨이 없이 육체에 근거를 둔 연합이라면 그것이 혈연이든 이익이든 그 무엇이든 육체가 없어짐과 함께 다 사라질 연합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야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 연합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바퀴살과 우산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퀴살은 서로 붙어서는 결코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바퀴살은 축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산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산살이 우산대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산살들이 서로 좋아서 붙는다면 우산의 모양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휘자에게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한 연합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둘의 만남에서 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무게는 6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를 합치면 12톤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톤을 끈다고 합니다.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내가 배우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붙잡고 계심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붙잡으심은 더욱 완전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육체의 혈연에 근거한 가족을 붙들려할수록 야합이 될 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연합의 마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유지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에 부부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삭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날 때에 아내 사라를 마음에서 죽였습니다.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부부관계이고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 연합의 근거가 바로 3절에서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간의 연합에 대한 노래에 영생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연합의 근거가 성전으로 인해 생겨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란 곧 내 마음이 하늘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과 연합된 상태가 영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의 복을 시온에서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만이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이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세상에 대해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는 곳입니다. 상번제의 어린양과 함께 죽어서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늘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다 노래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강화되고 결속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야합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치세력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현실로 느끼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듯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대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에 대한 이권을 주장하기 위해 뭉치고 단합하여 싸우는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망한 것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몰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사람들 전체를 묶으실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십자가의 예수님뿐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오히려 그 관계는 온전해집니다. 아내를 만날 때에 백배의 아내를 얻는 것이고 남편을 만나면 백배의 남편을 얻는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배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루하루 백배나 더 나은 관계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연합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시온의 성전이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에 영생은 시작됩니다.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과 승천을 따를 때에 영생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제도 미국 캘리포니아 시골에 사는 분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행복하게 살고 있으나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더니 어느덧 죽은 상태로 지나가고 있더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보는 순서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은 곧 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이 이미 들어온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죽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가족보다 일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보다 십자가를 더 먼저 보면, 세상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나는 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 너머로 마음이 가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를 보기 전에 세상을 볼 때에 죽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쳐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이 빠져나가고 세상에 대해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이후로도 계속 십자가를 먼저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세상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게 세상에 대해 죽었음이 유지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고 있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는 세상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연합할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상승효과가 나타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연합의 근거는 치매로 없어질 근거가 아니고, 육체가 죽으면 사라질 근거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갔음을 근거로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을 근거로 하는 연합이야 말로 이루어져야 할 연합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굉장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만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